

개신교 ‘자유케 됨’의 영성에 기초한 기독교 영성교육 모형: ‘자유케 됨’의 실천*

황인혜(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강사)

hesedih@hanmail.net

한글 초록

기독교 영성교육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에 있지만, 한국교회 현장의 영성교육은 개신교 전통에 따른 선명한 교육목적의 제시가 없는 가운데 교육 내용과 방법이 파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엄밀한 학문적 방법에 의거하여 개신교 영성교육의 목적을 정립하고 그것에 맞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찾아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필요성에 따라 수행된 본 연구는 개신교 영성의 핵심정신을 찾아 교육목적으로 삼고 그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개신교 고유의 영성교육 내용을 찾아 그것을 오랜 역사를 가진 그리스도교 영성수련들과 유기적으로 통합한 하나의 창의적 영성교육 모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교육목적의 설정을 위해서 개신교 대표지도자 루터(Luther), 칼빈(Calvin), 그리고 웨슬리(Wesley)의 ‘믿음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고찰하였다. 그 가르침 안에서 ‘개신교 영성’의 핵심정신으로서 ‘자유케 됨’(liberated-ness)의 정신을 발견하여 교육목적으로 삼고, 로마가톨릭교회의 ‘은혜’ 개념과는 다른 개신교 특유의 ‘은혜의 방편’ 전통을 발견해 내어 ‘자유케 됨’을 구현하는 교육내용으로 삼았다. 그리고 ‘자유케 됨’이 이루어지는 기전을 다음의 세 개의 창의적 개념으로 설명한다. 신자의 ‘자유케 됨’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자유케 하는 의지’(liberating will)로 시작되며, 신자는 ‘자기를 드리는 의지’(self-giving will)로 이에 응답하게 되는데, 이 두 의지가 만나는 접촉점이 ‘믿음의 생명막’(the

* 이 논문은 연구자의 박사 학위논문(연세대학교 대학원, 2021년 2월)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living membrane of faith)이다. 이 기전을 기초로 삼아 구성된 '자유케 됨의 실천' 영성교육 모형의 교육목적은 학습자가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가지며 점점 더 '자유케 됨'을 누리는 가운데 더 충성스럽게 이웃을 자유케 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학습자와 교사의 관계는 셰릴(Sherrill)의 인격적 '만남'의 관계이며 김현숙의 '공유적 권위'를 갖는 관계이다. 교육내용은 셰릴의 '만남'의 성경묵상과 다익스트라(Dykstra)의 '실천들', 그리고 개신교 '은혜의 방편'의 다섯 영역과 연계된 그리스도교의 영성수련 다섯 가지를 채택하여 그것을 개신교의 '자유케 됨'의 원리로 변형한 것이다. 이 영성수련들의 새로운 명칭은 '만남의 렉시오 디비나,' '주님향함기도,' '서로-영적방향잡기,' '자유마중섬김,' 그리고 '자유성찰기도'이다. 교수-학습과정은 다익스트라가 학습자 중심의 실천을 돕는 데 사용한 코칭과 멘토링의 과정이다. 교육환경은 무어(Moore)의 '성례전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인적 환경에 중점을 두며, 평가는 학습자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본 교육모형은 그리스도교 역사 안의 주요 영성수련 내용들을 명시적으로 개신교의 '자유케 됨'의 영성으로 변형하여 교육하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지는 그리스도교 영성수련의 맥을 개신교 교회에서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나갈 수 있게 해 준다는 의의를 갖는다.

《 주제어 》

개신교, 자유케 됨, 영성, 기독교 영성교육, 은혜의 방편, 실천, 자유케 하는 의지, 믿음의 생명막

I. 들어가는 말

'영성'이라는 말은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서 1990년대부터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는데,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목회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정원범, 2006, 13-23). 서구교회에서는 이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영성'에 대한 갈망들이 표출되었고(Dykstra, 1999, 3-13),

그에 대한 기독교교육학의 응답으로 1980년대에 컬리(Cully, 1986)가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이라는 교육이론서를 썼다. 1990년대 후반기에는 한국 기독교교육학계에서도 '기독교 영성교육'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논문들과 책들이 출판되기 시작했다(강희천, 1999, 203-283). 그 이후 영성교육 교육 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김정준, 2011), 영성교육 연구의 대상이 어린이까지 확대되었고(양금희, 2013), 최근에는 생태학적 기독교 영성(김은주, 2020)이라는 포괄적 주제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영성교육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날이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 영성교육의 현장은 이러한 영성교육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는 괴리가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 괴리는 지역교회들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양상은 교회의 교사교육, 지도자 교육 등의 명칭으로 '영성' 또는 '영성훈련'이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지만 실제로 행하는 내용은 그동안 해오던 교육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 양상은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 나타난 수련방법들 가운데 목회자가 실천해 보고 회중의 믿음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Bourgeault, 2017, 10). 그런데 이런 영성교육 내용들은 다른 지역교회들 현장에 보급되는 것에는 한계를 지니는데, 그 이유는 그 그리스도교 영성수련의 실천을 보고 그것은 로마가톨릭교회 전통으로의 회귀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이다(이승구, 2011, 121-155). 세 번째 양상은 선한목자교회의 '영성일기' 목회처럼 자기 교단 전통에 따른 한두 가지 신앙생활의 규칙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가운데 전체 목회를 효과적으로 세워가는 것이다(유기성, 2012). 다른 지역교회들에 보급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이러한 영성적 목회가 갖는 교육적 약점은 포괄적 영성교육의 틀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현재 외형적으로는 활발히 추구되는 개신교 교회들 안의 영성교육 노력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파편화되어 있다. 이 현상이 이 시대의 기독교교육학자들에게 던져주는 과제는 이 치우침과 파편화를 극복하는

새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길은 종교개혁에서 비롯된 개신교의 전통 안에서 개신교 영성교육의 선명한 목적과 내용을 발굴해 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길에는 큰 난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 교회는 현재 로마가톨릭교회에서 ‘영성’이라 불리는 전통의 많은 부분을 신앙생활 규범에서 제거할 수밖에 없었기에, 고전적 ‘영성’ 전통과 직접적인 연계성을 가진 내용을 현재 개신교 전통에서 찾아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 자료들, 구체적으로 종교개혁자들과 그 이후 교회를 이끌어간 개신교 지도자들의 글들에는 현대에 쓰이는 ‘영성’이라는 용어로 칭해지기에 합당한 바 ‘믿음의 삶’을 위한 핵심적 교훈들이 담겨 있다. 하지만 중세 로마가톨릭교회에서 쓰던 명칭들은 사용하지 않으려는 종교개혁자들의 의도적 노력으로 인해서 이 교훈들은 ‘영성’ 또는 ‘영성수련’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방향의 노력은 또 하나의 장애물을 만난다.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몇몇 학자들은 명확한 설명 없이 그러한 교훈들을 ‘영성’ 또는 ‘영성수련’이라는 말로 바꾸어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문적 논의를 생략한 이러한 기술 방식은 엄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김광목, 2013, 43-79).

그러므로 기독교교육 분야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성교육을 한국의 지역교회들 안에서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학문적 방법에 의거하여 개신교의 영성을 찾고 그 영성을 구현하는 핵심적 교육내용을 개신교 역사 그리고 전체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찾아내어 교육목적에 맞게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필요성에 의해 수행된 본 연구는 개신교의 핵심정신을 담은 ‘개신교 영성’을 교육목적으로 삼고 그 목적에 합하는 그리스도교 역사 안의 영성수련들을 찾아 그것을 개신교의 정신으로 변형한 창의적 영성교육 모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개신교의 '자유케 됨'의 영성 및 '은혜의 방편'

1. 개신교 '자유케 됨'의 영성

영성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개신교 전통 내에서 찾기 위해서는 대표적 개신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서 영성과 관련되는 핵심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개혁자 루터(Luther)와 칼빈(Calvin), 그리고 감리교 지도자 웨슬리(Wesley)를 대표적 개신교 지도자로 택하여 믿음의 삶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을 논한다.

1) 루터와 '자유케 됨'의 영성

면죄부를 비판하는 95개의 반박문으로 불을 당긴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당시 로마가톨릭교회 사제였던 루터가 씨름한 중심주제는 '구원'이었다. 로마가톨릭교회가 지배하던 그의 시대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논리, 즉 면죄부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었던 루터는 면죄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면죄부 사건의 중심에는 면죄부라는 원인이 인간 구원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일종의 기계적 인과론의 논리가 있다(현요한, 1998, 102-111). 이 기계적 인과론의 논리는 구원에 있어서 신자가 갖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대비되는 새로운 구원론을 제시한 종교개혁자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에 나타난 '구원'은 본질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의미한다(이형기, 1994, 68; Luther, 1999, 83-132). 루터는 이 새로운 구원론을 가지고, 면죄부로 그 치부를 드러낸 바 하나님의 '은혜'를 주입될 수 있는 일종의 사물로 간주해 온 중세교회의 잘못된 구원론을 격파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의'라는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한 종교개혁은, 로마가톨릭교회의 비인격적 구원론에 매여있던

당시 교인들의 신앙과 종교생활에 ‘자유케 됨’을 가져온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루터는 ‘전신자제사장직’의 가르침을 통해 그동안 사제의 권위에 눌러있던 평신도들에게 누구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선명한 신학적 논리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격려했다(이형기, 72). 신자들은 이제 사제들이 오랜 세월 동안 막강한 종교적 권력으로 자행해왔던 사회경제적 횡포로부터도 벗어나는 ‘자유케 됨’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로마가톨릭교회의 잘못된 전통에 의해 억압되어온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 영역은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자유케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신자의 삶의 전 영역에 ‘자유케 됨’이 전파되게 한 근원적 힘은 비인격적 구원론으로부터의 ‘자유케 됨’이다.

영향력 있는 개신교 영성학자인 맥그라스(McGrath)가 내린 ‘기독교 영성’의 기본정의를 따라 우리가 기독교 영성을 “기독교 신앙의 범위와 규범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인 경험”으로 정의한다면(McGrath, 2006, 34), 루터는 이렇게 당시 기독교 신앙의 범위와 규범 안에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총체적인 경험’에서 ‘자유케 됨’을 누릴 수 있는 새 길을 열어 줌으로써 그리스도교 역사에 새로운 ‘영성,’ 즉 ‘자유케 됨의 영성’이라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영향력 있는 개신교 영성학자인 홀즈(Holmes)가 내린 영성 정의의 핵심인 “관계성의 형성 능력”도 “세계 안에서 창조적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므로 결국 ‘삶의 총체적인 경험’과 연결이 된다(Holmes, 2013, 29). 그러므로 루터는 당시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현대의 용어로 우리는 루터가 ‘자유케 됨(liberalizedness)의 영성’을 창시했다고 말할 수 있다.

2) 칼빈과 ‘자유케 됨’의 영성의 구현

이렇게 루터를 통해 마련된 개신교의 ‘자유케 됨의 영성’의 기초 위에,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더 풍성한 가르침을 전개했다. 칼빈에 따르

면, 신자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믿음'을 받게 되고, 이 '믿음'으로 신자는 '칭의'의 상태가 된다(Calvin, III. i. 4; III. xi. 2). 칭의, 즉 '의롭다고 인정받은' 신자의 이 상태는 값없이 이전의 죄를 용서받은 상태이므로, 다르게 표현하면 죄로부터 '자유케 됨' 상태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자유케 됨' 상태에서 믿음의 삶을 시작한다. 칼빈은 칭의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인 기도, 말씀 묵상, 삶의 실천 모두를 믿음과 연결시켜 가르쳤다. 그 가르침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도,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요약될 수 있다(Calvin, III. xx. 5; III. i. 1.).

이러한 '믿음의 삶'이 바로 '경건'(Calvin, I. ii. 1.)의 삶이며 '성화'(Calvin, III. xiv. 4.)의 삶이다. 이 '성화'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말씀묵상의 실천을 통해 루터가 강조한 '칭의'의 상태 즉 이미 죄로부터 '자유케 됨' 상태를 지속적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살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칼빈도 그의 책에서 '영성'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칼빈의 '믿음의 삶'에 대한 가르침은 '자유케 됨'의 영성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가르침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요약하면, 칼빈은 '경건'과 '성화'의 삶을 위한 가르침을 제시함으로써 루터가 창안한 '자유케 됨'의 영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길을 닦았다.

3) 웨슬리와 '자유케 됨'의 영성을 위한 '은혜의 방편'

위에서 논한 루터와 칼빈보다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삶'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친 사람은 영국의 개신교 지도자 웨슬리이다. 그는 신자들의 '믿음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실천해야 할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시했다. 웨슬리는 신자들의 믿음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가르쳤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구체적 내용으로 성경묵상, 기도, 성찬 참여, 소그룹모임(숙회), 영성일지 등을 꼽았다. 그리고 이 실천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제정하신 자리라는 의미

에서 명시적으로 ‘은혜의 방편(수단)’(means of grace)이라 칭했다(이후정, 2000b, 191). 웨슬리는 신자들에게 이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실천하라고 여러 방식으로 강조했다.

웨슬리가 ‘믿음의 삶’을 위해 가르친 것들은 내용에 있어서 칼빈이 ‘믿음’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신자들을 가르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표현에 있어서는 고유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별히 ‘사랑’과 연결시킨 것이다. 구체적으로, 웨슬리는 기도와 말씀묵상, 그리고 삶에서의 모든 실천이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라고 보았다. 특별한 것은, 신자가 자신에게 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보았다는 점이다(Wesley, 2006, 11: 36; 52). 이 ‘완전’의 상태는 죄로부터 ‘자유케 됨’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목표로 하는 웨슬리가 ‘믿음의 삶’에 대한 가르침은 ‘자유케 됨’의 영성이라고 칭해지기에 합당하다. 그리고 ‘은혜의 방편’으로 칭해진 웨슬리의 구체적 가르침인 성경묵상, 기도, 성찬 참여, 소그룹모임, 영성일지 등은 ‘자유케 됨’의 영성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이후정, 2000b, 184-193).

앞의 세 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루터, 칼빈, 웨슬리가 가르친 ‘믿음의 삶’을 위한 가르침은 ‘자유케 됨’이라는 공통 목표를 갖는다. 이러한 ‘믿음의 삶’의 가르침대로 사는 삶은 ‘자유케 됨’을 지향하는 삶이다. 또한, 칼빈과 웨슬리가 신자들에게 ‘믿음의 삶’을 위해 부지런히 실천하라고 가르친 ‘은혜의 방편’은 모두 ‘자유케 됨’을 위한 활동들이므로, 개신교의 ‘은혜의 방편’은 ‘자유케 됨’의 영성의 삶을 구현하는 길이다.

위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신교 영성’을 ‘믿음의 삶을 위한 가르침인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실천함으로써 점점 더 자유케 되어 가는 그리스도인 삶의 총체적 경험’으로 정의하고, 줄여서 ‘자유케 됨의 영성’으로 명명한다. 특별히, ‘자유케 됨’의 영성을 구현하는 길인 이 ‘은혜의 방편’은 그 실천적 특성상 영성교육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음 절에서 더 상세히

논한다.

2. 개신교 특유의 '은혜의 방편'과 그리스도교 영성수련의 관계

앞 절에서 칼빈과 웨슬리가 '자유케 됨'의 영성을 구현하는 길로서 제시한 것은 동일하게 '은혜의 방편'이다. 다른 점은, 칼빈은 '은혜의 방편'이라는 용어를 『기독교강요』 4권의 제목으로서 신자의 삶의 큰 틀을 칭하는 용어로만 사용한 데 비해서(Calvin, IV. T), 웨슬리는 자신의 설교들과 책에서 광범위하게 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두 개신교 지도자에 의해 가르쳐진 개신교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실천들과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영성수련'이라고 일컬어진 실천들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 연계성을 근거로 그 영성수련 내용을 개신교 영성교육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개신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이 '은혜의 방편'은 중세 로마가톨릭교회가 성례전을 통해 신자에게 주입되는 '은혜'라고 가르친 그 '사물화된 은혜'를 받는 방편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이다. 로마가톨릭교회에서 '은혜의 방편'은 성례전으로 고착되었을 뿐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의 '사물'로 격하시키고 '창조된 은혜'라는 관점에서 인간 선행의 공로를 중요하게 보았다(현요한, 1998, 102-111). 이 '창조된 은혜'와 연속선 상에서 만들어진 면죄부의 오류를 격렬하게 비판하고 바로잡은 종교개혁자들과 개신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이 개신교 특유의 '은혜의 방편' 안에는 '은혜'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전제가 들어있다. 요컨대, 신자가 '은혜의 방편'을 실천하는 노력은 하지만 그 '은혜'의 수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신자가 '은혜의 방편'의 실천인 기도, 성경묵상 등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은혜는 그것을 소유하신 이가 주시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Calhoun, 2018, 334-335). 신자는 다만 '기다림'의 역할을 할 수 있

을 뿐이다.

한편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보면, 로마가톨릭교회 제도권과는 거리를 둔 수도원적 영성생활에서는 로마가톨릭교회에서 가르친 바 성례전에서 ‘주입’되어서 그 효과를 나타내는 기계론적 인과론의 ‘은혜’와는 다른 은혜를 추구하는 영성수련들이 실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초대 교회에서 시작된 영성지도(유해룡, 1999, 137-203; Leech, 2006, 78-82), 수도원에서 실천된 말씀묵상 방법인 렉시오 디비나(허성준, 2003), 그리고 14세기 영국의 무명의 영성가가 가르친 침묵기도(『무지의 구름』의 저자, 1997, 58-63) 등등의 영성수련은 삶의 분별을 위한 은혜와 죄를 이기는 은혜를 포함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었다. 이러한 수도원과 수도원 밖의 수도자들이 기도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 예를 들면 아시시의 프란체스코(St. Francis of Assisi)의 탁발 수도와 봉사 그리고 성흔의 체험(McGrath, 2005, 277-280), 로울라의 이냐시오(Ignacio)의 오감을 사용하는 성서묵상과 성찰기도(Ignacio, 2005), 그리고 아빌라의 테레사(Teresa of Avila)의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기도(Teresa, 2008, 23) 등등의 ‘은혜’ 체험의 핵심은 ‘인격적 접촉’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이어져온 영성수련은 로마가톨릭교회의 성례전에서 주입된 ‘은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신교의 ‘은혜의 방편’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위에서 논한 개신교의 ‘은혜의 방편’과 그리스도교의 영성수련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오랜 그리스도교의 역사 안에서 ‘영성수련’이라고 일컬어져 왔던 것들 즉 렉시오 디비나, 침묵기도, 영성지도, 이웃섬김활동, 그리고 성찰기도 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인데, 그것은 로마가톨릭교회의 제도권에서 가르친 사물화된 ‘은혜’를 받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개신교의 ‘은혜의 방편’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역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제정하신 자리인 ‘은혜의 방편’ 즉 성경묵상, 기도, 그리스도인의 모임(속회), 이웃봉사 그리고 성찰일지 등의 활동을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부지런

히 실천하는 것은 개신교 안의 '영성수련'이라고 불려질 수 있다. 그러므로 수련의 목적이 개신교의 '자유케 됨'의 영성과 통하는 그리스도교 영성수련 들은 개신교의 '영성수련'이 될 수 있고, 개신교 영성교육 모형의 교육내용 으로 채택될 수 있다. 다만, 성례전도 개신교의 '은혜의 방편'의 요소인 것 을 확실하지만(Calvin, IV. xvii. 2.), 성례전은 로마가톨릭교회에서 왜곡한 대표적 '은혜의 방편'이었고, 또한 그 목적과 결과가 "그리스도와의 연합"(Calvin, IV. xvii. 2.)으로서 다른 '은혜의 방편'인 기도와 성경묵상의 목 적과 결과와 동일하기에 본 모형의 교육내용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III. '자유케 됨의 영성'의 핵심요소들

앞 장에서 논의된 루터, 칼빈, 그리고 웨슬리의 '믿음의 삶'에 대한 가르침에서 나타난 '자유케 하는'(liberating)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신자의 '자유케 됨'(liberated-ness)을 이루어 준다. 그런데 이 은혜가 신자에게 오는 구체적 기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자유케 됨'의 영성을 위한 교육모형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자유케 됨'의 기전은 일반 학문에서 논하는 '자유'와 관련이 되면서도, '자유케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기에 일반 학문의 개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므로 그 기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들이 필요하다. 이 필요성에서 연구자는 개신교의 독특한 '자유케 됨'의 기전을 규명하기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들을 창안하였다. 그것은 신자의 '자유케 됨'의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쪽의 의지를 칭하는 '자유케 하는 의지'(liberating will),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의지'에 반응하는 신자 쪽의 의지로서 '자기를 드리는 의지'(self-giving will), 그리고 이 두 의지가 만나는 좌소로서의 '믿음의 생명막'(the living membrane of faith)이다.

1. '자유케 하는 의지'(Liberating Will)

본 모형의 '자유케 됨'의 기전은 '자유'와 관련된 칸트(Kant)와 부버(Buber)의 철학적 개념들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서양 철학사에서 '자유'의 개념을 기초로 자신의 도덕철학을 세운 대표적 인물은 칸트이다. 칸트가 제시한 두 가지 자유인 '선행적 자유'와 '실천적 자유'가운데, 후자인 '실천적 자유'의 핵심은 사람이 자신의 도덕법칙을 세우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에 있다(Kant, 2009, 53). 한편 칸트는 전자인 '선행적 자유'의 '절대적 자발성'에 대해서는 객관적 실제성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Kant, 51). 칸트에 의해 그 기전이 잘 설명된 '실천적 자유', 그리고 그 객관적 실제성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칸트가 인정한 '절대적 자발성', 이 두 가지 다 '의지의 속박'(노예의지론)이라는 루터의 가르침과 관련된다.

루터에 의하면,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Luther, 1999, 217-261). 루터가 '의지의 속박'이라는 논문에서 말한 "자기 아래 있는 것"(*rebus inferioribus*)은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선택하는 능력 또는 문화생활에서 선택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능력과 관련된 자유는 칸트의 '실천적 자유'와 동일한 범주의 개념이다. 루터는 이 "자기 아래 있는 것"에 대한 선택에서도 인간의 의지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루터가 강조하고자 한 '의지의 속박'의 핵심은 "자기 위에 있는 것"(*rebus superioribus*)에 있다(Luther, 245). 요지는 인간이 자신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루터가 말한 이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자기 위에 있는 것"의 영역은, 칸트의 '실천적 자유'에 속하는 자유가 아닌 '절대적 자발성'으로서의 자유의 영역과 연관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칸트의 '절대적 자발성'의 개념과 루터의 '의지의 속박'의 개념은 부버의 인격철학의 개념으로 잘 설명되는데, 그 개념은 '나-너'와 '나-그것'라는 짝말

이다(Buber, 1995, 7-8). 이 짝말의 대비를 통해 부버가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은 이 서로 다른 인격 간의 '사이성'이 가지는 '자유'와의 연관성이다. 부버는 '그것의 세계'에서 벗어나 '너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자유'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Buber, 77). 부버의 '그것의 세계'를 '자유'와 '자유의지'를 논하는 철학용어로 재진술한다면, 그것은 한 편의 철학자들이 인간이 소유했다고 간주하는 '자유' 또는 '자유의지'와 대조를 이루는 '결정론'의 세계이다(안건훈, 2006, 36-39).

인간의 행동이 인과론의 법칙에 따른다고 보는 '결정론'의 입장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다(안건훈, 80-102). 결정론의 핵심은 특정 결과가 특정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데 있다. 인과론적 결정론의 법칙은 자연과학의 기초가 되는 유용한 법칙이지만 인간 존재와 삶의 '모든' 것이 자연과학의 법칙의 대상이 되거나 종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편의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간의 '모든' 행동이 결정론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에서 이 결정론이 지배하는 상황이 있다. 그것은 특정한 A가 특정한 상황에서 부버의 용어로 '그것의 세계'에 있을 때이다. A와 다른 사람 B가 '나-그것'의 관계에 있을 때, 즉 A에게 B가 어떤 특정 원인체로 조종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질 때, A는 B를 자기의 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존재, 즉 '결정론적' 존재로 보게 된다. 이 때의 A의 사고는 '결정론적 사고'이며, 이 사고는 '그것의 세계'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이 '결정론적 사고'에 동반되는 바 B를 조종하고자 하는 A의 의지는 '결정론적 의지'라고 칭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A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결정론적 사고와 결정론적 의지에서 스스로 벗어나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루터의 대답은 '아니오'이다(Luther, 217-261).

만일 인간이 결정론적 의지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루터의 언어로 말하면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자유케 함', 즉

하나님만이 가지신 '자유 의지'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케 함'에 의존하는 것이다(Luther, 243; 95-111). 인간을 '자유케 하는'(liberating) 이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의 '의지'(will)에서 나온 것이다. 이 지점에서 논의의 핵심은 인간의 의지 논의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논의로 이동하고, '자유로운' '의지'(free will)에 대한 논의가 아닌 '자유케 하는'(liberating) '의지'(will)에 대한 논의로 변모한다. 이 '자유케 하는 의지'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루터는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신자를 '자유케 하심'에 대해 각각 논했으나(Luther, 243; 95-111),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과 '의지'를 연결한 용어를 쓰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루터가 설명한 이 하나님의 의지를 명확히 '자유케 하는 의지'(liberating will)라고 명명한다.

2. '자기를 드리는 의지'(Self-giving Will)

위에서 명명한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의지'가 신자에게 미치는 영향, 즉 하나님의 의지가 '나'라는 존재 안에서 일으키는 역동적 과정을 설명하려면 또 다른 독립적 기전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 기전에 대한 논의가 바로 앞에서 멈춘 인간의 '자유의지' 논의를 이어갈 지점이다. 과연 인간의 '의지'가 자유로운지에 대한 루터의 논의는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글에서 루터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그의 '자유의지'는 회복되고 그는 이웃 섬김을 위해 그의 '자유'를 사용한다고 강조한다(Luther, 118).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유케 함'을 받아서 이제는 선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 그리스도인의 '의지'의 변화에 대한 묘사이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의지에 의해 자유케 된 신자의 자유의지가 마땅히 하게 될 행위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신이 받은 자유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 다시 말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행위'여야 마땅하다.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신자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이다(롬 12:1).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상태의 의지가 '자기를 드리는 의지'(self-giving will)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회복된 자유는 어떤 기점으로 선, 이웃 섬김, 그리고 이웃을 자유케 하는 데 사용될까?'라는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다. 대답은,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답하면, 자신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자유케 됨'이라는 물길에 자신을 열어 그 물길을 계속 받으면서 동시에 그 물길의 방향을 이웃에게로 여는 것이다. 이 때 이 신자가 한 일,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유케 됨'의 물길을 받고, 이웃에게로 그 물길을 여는 것도 일종의 행위이므로 이 사람의 자유의지, 즉 '자기를 드리는 의지'가 작동하고 있음이 분명할 것이다.

그런데 이 '자기를 드리는 의지'의 정의 가운데에는 하나의 역설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 '의지'는 신자의 의지이면서 동시에 그 자신과 자신의 자유의지가 드러지고 있기에 그 의지는 이미 자신의 것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이다. 역설적 성격을 갖는 이 '자기를 드리는 의지'는 십자가의 '자기비움'에서 그 원형을 보이신 성자 하나님의 의지, 즉 자신을 드림으로써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하신' 성자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기비움'(빌 2:5-8)의 의지, 자신이 비워짐으로써 타자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자기를 드리는 의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말은 신자가 자신의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지가 작동함과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흘러들어오는 바 타자를 '자유케 하는 의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역동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3. '자유케 됨'의 통로인 '믿음의 생명막'(the Living Membrane of Faith)과 영성

위에서 논한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의지'가 신자에게 작동하여 '자기를 드리는 의지'라는 응답을 일으키려면 인간 안의 어느 부분과 접촉점을 가져

야 한다. 그 접촉점은 양자가 접촉하고 있는 지점이기에 그것은 인간 편만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 편만의 것도 아닌 공동의 지점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의 접촉점과 가장 가까운 성경 상의 개념은 '구원'을 위한 '은혜'의 통로인 '믿음'의 개념이다. 이 '믿음'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데(엡 2:8), 동시에 신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마 14:31; 막 10:52; 눅 17:19; 요 20:27; 행 11:24 등). 그러기에 이 '믿음'은 한쪽은 하나님에게 속했고 다른 한쪽은 인간에게 속한 하나의 '접촉점'의 이미지를 가진다. 바로 이 '접촉'으로서의 '믿음'의 개념을 선명하게 제시한 사람이 개신교 신학자 브루너(Brunner)이다. 그는 그의 책, *Truth as Encounter*에서 '믿음'을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encounter)'이 일어나는 '접촉점'으로 묘사하였다(Brunner, 1943, 73-74). 이와 유사하게 현대 기독교교육학자 다이스트라는 '믿음'이란 그 자체가 자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믿음의 삶을 성장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 무엇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한 조용한 지점(a still point)'이라고 묘사했다(Dykstra, 1999, 39).

'믿음'에 대한 이 두 사람의 언어적 설명은 확실하지만 그것을 이미지로 그리기에는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에, 인간 편만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 편만의 것도 아닌 이 '믿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접촉하는 접촉점의 기능을 하는 이 '믿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새로운 이미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자는 접촉점으로서의 '믿음'을 상징하는 하나의 생물학적 비유로서 인체의 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membrane), 즉 세포막의 구조를 채택하였다. 세포막은 살아있는 세포의 세포질 안과 세포질 바깥의 경계를 짓고 있는 막이다(정미영, 2017, 136-138). 이 '세포막'은 그 막 안의 세포질 또는 세포질 바깥이라는 양자 중 하나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동등하게 접촉하고 있는 경계선으로서의 접촉면이다. 또한 이 막은 생명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생동적 막이다. 한편, 접촉의 이미지를 갖는 기독교의 '믿음'은 그 접촉면에서 한 쪽 면은 하나님의 영, 다

른 한쪽 면을 인간의 영이 접촉하고 있기에 이 세포막의 구조와 유사점을 갖는다. 안과 밖의 물질이 드나드는 '문'으로서의 '세포막'은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그 기능을 하는 막이기에 그 막은 '생명막'(living membrane)이라고 불릴 수 있다. 이 '생명막'은 '믿음'의 생동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비유적 막을 '믿음의 생명막'(the living membrane of faith)이라 명명한다.

이 '믿음의 생명막'이라는 생물학적 비유로서 연구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신자 간의 '관계성'의 핵심은 서로 접촉하고 있는 양자 간에 일어나는 쌍방향의 끊임없는 의지의 교환이라는 것이다. 이 의지의 교환으로서의 '관계성'이야말로 신자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가는 데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역동적 '관계성'은 '믿음의 삶을 위한 영적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점점 더 자유케 되어 가는 그리스도인 삶의 총체적 경험'으로 정의된 '개신교 영성'이 살아있게 하는 생명이다. 요약하면, 이 '믿음의 생명막'에서 끊임없이 교환되는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의지'와 신자의 '자기를 드리는 의지'가 형성하는 역동적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 경험이 개신교의 '자유케 됨'의 영성이다.

4. '믿음의 생명막'과 영성수련

위에서 정의된 개신교의 '자유케 됨'의 영성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역동적인 현상이며, 이 변화는 '자유케 됨'이 심화되는 쪽으로의 변화이다. 이 변화를 또 하나의 역동적 이미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신자가 '믿음의 생명막'의 한편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접촉하고 있는 것이 '자유케 됨'의 상태인데, 이 '자유케 됨'은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의지'가 그에게 '믿음,' 즉 '믿음의 생명막'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시작된 것이다. 그 이후 신자는 계속 이 '믿음의 생명막' 한쪽에서 그 막의 접촉을 통해 하

나님 쪽에서 오는 '자유케 하는 의지'를 받아들이는데, 신자 편에서는 '자기를 드리는 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의지'를 받아들인다. 이 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자유케 함'이라는 생명의 '흐름'이 신자의 전인 안으로 막힘없이 흘러들어와, 그 흐름의 힘으로써 신자의 내면에 있던 불순물들, 즉 이전에 신자의 의지를 속박하던 근원과 그것이 삶의 세월을 통해 만들어낸 이기적 습관들을 지속적으로 씻어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점점 더 적은 장애물 가운데 계속적으로 '자기를 드리는 의지'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의지'를 점점 더 막힘없이 흘러들어오게 하여 그것을 이웃에게 흘러 보낸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말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삶의 상태이며(Luther, 95-111), 웨슬리의 지향점인 '그리스도인의 완전' 즉 '사랑의 삶'을 사는 모습이다(Wesley, 11,15,16). 이 웨슬리의 '사랑의 삶'은 칼빈의 '믿음의 삶'(Calvin, III. ii. 7; III. ii, 34)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뜻하신 삶의 모습이다(요일 4장 7-8절). 사람은 하나님이 뜻하신 자기 자신일 때 가장 자유로운 것이므로 바로 이 상태가 신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자유케 됨'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자유케 됨의 영성'의 삶은, '믿음의 생명막'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종류의 의지의 상호교환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과정인데, 의지라는 것은 노력을 동반하는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인간 편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 노력은 타자가 아닌 본인 스스로 행하는 것이므로 '수련'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고, 목적은 신자의 '영성'의 지속을 위한 것이므로 '영성 수련'이라 일컬어질 수 있다. 특별히 개신교 신자의 노력을 요청하는 '영성수련'은 개신교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영성수련'을 말하는데, 이 때 개신교의 '은혜의 방편'이란 그리스도교 전 역사에서 신자들에 의해 수행된 주요 영성수련들을 포함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이다. 이때 신자들이 이 '영성 수련'을 스스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필요한데,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영성교육이다.

IV. '자유케 됨'의 영성을 위한 교육모형: '자유케 됨의 실천'

이제 '자유케 하는 의지,' '자기를 드리는 의지,' 그리고 '믿음의 생명막'의 역동적 기전으로 구성되는 개신교 '자유케 됨'의 영성을 위한 교육으로서, 개신교 특유의 '은혜의 방편'을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 나타난 영성수련들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다음과 같은 '자유케 됨의 실천' 교육모형을 제시한다.

1. 교육 목적

'자유케 됨의 실천' 모형의 교육목적은 학습자가 기독교의 실천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을 통하여 점점 더 깊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가지며 '자유케 됨'을 점점 더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이웃을 자유케 하는 일을 더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becoming)이다. 이 목적을 이루는 핵심에는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의지'가 있다.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의지'는 학습자가 교육내용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자기를 드리는 의지'를 촉발하고 그 결과로서 학습자 안에서 하나님을 '자유케 하는 의지'가 흐르게 한다. 이 학습자 안의 '자유케 하는 의지'는 그와 '만남'을 갖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케 됨'을 구현하는 통로가 된다.

본 모형의 이 '자유케 됨'(liberated-ness)의 개념은 프레이리(Freire)의 교육이론의 목적인 "인간화"가 지향하는 정치경제적 '해방'(liberation)과 용어는 유사하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Freire, 1986, 101). 본 모형의 '자유케 됨'은 정치경제적 해방(자유케 됨)보다 더 근원적인 '자유케 됨'의 상태이기 예, 이 교육모형의 실천을 통해 증진되는 '자유케 됨'의 영성은 프레이리가 추구하는 '해방'의 실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또한, 본 모형의 '자유케 됨'은 그룹(Groome)의 "공유적 프락시스" 과정에서 학습자가 변증법적 해석학을 통해 얻게 되는 "인간 자유"(human freedom)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Groome, 1983, 132-166), 자유가 이루어지는 기전을 다른 방식으로 제시한다. 본 모형은 그룹이 논하지 않은 두 가지 '의지' 개념에 착안해서, 그 두 가지 의지의 역동적 상호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유케 됨'의 과정을 명시한다.

이 교육목적에 따른 구체적 교육목표들은 첫째, '믿음의 삶'에서 인격적 '만남'의 장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기, 둘째, 그 공동체 안에서 학습자와 교사가 함께 '자유케 됨'을 위한 실천들 행하기, 셋째, 그 실천의 열매로서 '자유케 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이다.

2. 학습자와 교사

본 모형에서는 교육내용보다 학습자와 교사에 대해서 먼저 논한다. 그 이유는 학습자와 교사가 구성하는 관계 자체가 교육내용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내용을 실천하는 주체가 학습자이기에 교사보다 학습자에 대해 먼저 논한다.

학습자는 자유롭지 못했던 존재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는' 존재, 그리고 지속적으로 더 '자유롭게 되어가는' 존재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학습자가 자기의 자유를 위해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욱 자유롭게 하시도록 응답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학습자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데 힘쓰는 존재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교육내용을 부지런히 행하는 것은 학습자의 몫이므로 실제로 학습자는 교육내용의 주체적 실천자가 된다는 점이다. 즉 교사가 행하는 교육내용의 전달 과정보다 학습자의 실천과정이 더 중요하다.

교사는 학습자의 '자유케 됨'을 돕는 존재로서 코칭과 멘토링의 역할을 한다(Dykstra, 72). 이 때 교사는 셰릴(Sherrill)이 강조한 바 학습자와 인격

적 '만남'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Sherrill, 1981, 515). 이 관계적 역할을 잘 하려면 먼저 교사 자신이 '자유케 됨'의 상태에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사 자신이 본 모형의 교육내용을 실천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교사는 자신의 '자유케 됨'의 실천을 하면서 학습자의 '자유케 됨'의 '실천'에 동반한다. 이렇게 함께 '자유케 됨'의 실천을 하는 교사와 학습자의 관계는 교사와 학습자가 권위를 함께 나누어 가지는 '공유적 권위'의 관계이다(김현숙, 2007, 191-214).

3. 교육의 내용

교육내용은 개신교의 '자유케 됨'의 영성을 구현하는 실천으로서 채택된 개신교 특유의 '은혜의 방편'의 내용 가운데 다섯 개의 대표 영역을 정하고, 그 영역들 각각과 연계가 되는 그리스도교 영성수련을 선택하여 유기적으로 통합한 것이다. 명칭은 각 영성수련의 특색을 잘 나타내주는 순한글 중심 이름으로 정하였는데, 명칭의 기준은 기존 영성수련의 명칭을 뒤에 두고 앞에는 개신교의 특성을 관용어로 수식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만든 새 이름은 다음과 같다. 성경묵상 영역은 '만남의 렉시오 디비나,' 기도 영역은 '주님향함기도,' 봉사 영역은 '자유마중섬김,' 신자 간 사귀의 영역은 '서로-영적방향잡기,' 그리고 삶의 성찰 영역은 '자유성찰기도'이다.

1) '만남의 렉시오 디비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렉시오 디비나

'은혜의 방편'의 성경묵상 영역 교육내용으로 개발된 것의 명칭은 '만남의 렉시오 디비나'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역사에 수도원 전통으로 전해져 내려온 렉시오 디비나라는 성경묵상 방식에 기독교교육학자 웨일의 핵심개념인 '만남'이라는 주제를 통합한 것인데, 웨일의 '만남'은 인격적 접촉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만남'은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이라는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웨일리가 말한 학습자와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 '만남'의 사건은 성경말씀 안에 담긴 객관적 진리를 깨닫는 것과는 다른데, 그 만남의 사건은 렉시오 디비나 방식의 묵상을 통해 다음과 같이 구현될 수 있다.

학습자는 성서사건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된 자기 중심적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벌거벗은 자기와 하나님(그리스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만남'의 사건 가운데 학습자는 그러한 일그러진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게 된다. 인격적 만남을 통해 성취되는 바 이 이중적 '읽'은 칼빈이 설명한 '하나님을 아는 읽'과 '자신을 아는 읽'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장이며(Calvin, I. i. 1; I. i. 2), 이 읽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다. 이 특별한 종류의 '읽'은 다음 단락에서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학습자에게 '자유케 됨'을 가져온다.

기존의 렉시오 디비나는 귀고2세가 전한 4단계로 이루어진다(허성준, 2003, 196-210). 그 첫째인 '읽기(*lectio*)'는 성경 본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 것이다. '만남의 렉시오 디비나'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읽는다. 둘째인 '묵상하기(*meditatio*)'는 본문을 읽다가 마음에 어떤 말씀이 부딪쳐오면 조용히 그것에 머무르며 더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이다. '만남의 렉시오 디비나'에서는 특별히 만남과 관련된 이미지나 사건을 더 깊이 묵상한다. 셋째인 '기도하기(*oratio*)'는 앞의 '묵상하기'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인데, 이 단계는 학습자가 성경말씀 안에서 마음으로 듣게 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단계이다. '만남의 렉시오 디비나'에서는 이 지점이 학습자가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의지'에 열리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넷째인 '관상의 상태(*contemplatio*)'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체험 자체를 말한다. '만남의 렉시오 디비나'에서는 학습자가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의지'에 '자기를 드리는 의지'로 응답하는 순간이 이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며, 이 깊은 '만남'이 일어나는 좌소가 '믿음의 생명막'이다.

‘만남의 렉시오 디비나’는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묵상본문들과 학습과정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한다. 첫째,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련되는 신구약 성경 구절들을 찾아 묵상본문으로 정한다. 신약의 복음서는 모두 ‘만남의 렉시오 디비나’의 본문이 될 수 있다. 둘째, 위의 네 단계 각각의 명칭을 그 첫단계인 ‘읽기’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는 것이라고 ‘만남의 읽기’ 등으로 명명한다. 이 명명은 매 단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Sherrill, 2005: 211-212).

2) ‘주님향함기도’: 개신교적 침묵기도

‘은혜의 방편’ 실천의 기도 영역 교육내용으로 개발된 것은 ‘주님향함기도’이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침묵기도의 형식으로 드러진 기도와 맥을 같이 하는 개신교적 침묵기도이다(『무지의 구름』 저자, 1997, 65-190). ‘주님향함기도’는 자기중심이었던 마음을 의도적으로 돌이켜 주님을 향하는 것을 침묵 가운데 수련하는 기도로서, 기복적 기도의 동기가 되는 탐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마음과 행동의 습관으로부터의 ‘자유케 됨’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이다. 이 기도는 학습자가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의지’를 받아들이는 좌소인 ‘믿음의 생명막’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로서, 이 기도의 근거는 개신교 구원론의 핵심인 ‘칭의’에 있다. 칼빈이 가르친 두 가지 ‘은혜’ 이해에 따르면 신자에게는 평생 변함없는 ‘칭의의 은혜’가 있는데(Wendel, 1999, 308-309), 이 ‘칭의의 은혜’는 신자가 믿음의 삶의 시작점에서 받은 ‘믿음의 생명막’ 자체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믿음의 생명막’을 통해 신자와 그리스도를 계속 이어주고 계신다(Calvin, III. i. 1.). 이 ‘이어줌’이라는 접촉은 신자의 성화의 과정과도 관련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와 독립적으로 신자의 이 땅에서의 삶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되는 ‘칭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이 ‘칭의의 은혜’는 언제나 신자를 붙잡고 있다. 이 ‘칭의의 은혜’가 신자의 마음과 접촉하고 있는 면이 ‘믿음의 생명막’인데, ‘주님향함기도’는 학

습자가 날마다 의지적으로 마음을 돌려 이 ‘믿음의 생명막’에 접촉하는 것이다. 이 의지적 행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이 행위는 칼빈이 말하는 ‘회개’이다 (Calvin, III, iii, 6). 회개는 신자를 죄로부터 ‘자유케 됨’의 상태로 이끄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회개인 이 ‘주님향함기도’는 학습자를 ‘자유케 됨’으로 이끌어준다.

‘주님향함기도’의 실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일 정한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 ‘향함’이라는 것은 물리적 공간상의 방향이 아니라 원함의 방향인데, 이 방향은 로마가톨릭신부 키팅(Keating)이 고안한 ‘향심기도’ 지침에서처럼 학습자 안에 있는 하나의 중심을 향한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 아니다(Keating, 1999, 11-14). 학습자는 자신의 욕망의 방향을 돌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향하는데 이 향함 자체가 ‘믿음의 생명막’과의 접촉을 이룬다. 둘째, 이런 마음의 향함에 도움을 주는 기도문, 즉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담은 짧은 기도문을 침묵 가운데 마음 속에 천천히 반복한다. 이때의 기도문으로는 주기도문의 일부 또는 학습자 자신이 만든 한두 문장의 기도문을 사용한다. 연구자가 ‘믿음의 생명막’의 이미지를 갖는 신구약 성경 구절들의 내용을 시적으로 표현하여 만든 다음과 같은 2절의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의 일부를 학습자가 자신의 ‘주님향함기도’를 위한 기도문으로 사용하면서 나중에 이와 비슷한 자신만의 기도문을 만들 수 있다.

〈1절〉

온 맘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네 온 맘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네 (마 22:37)
부드러운 생명의 빛 내 맘에 비치네 온 맘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네 (요 1:4)

〈2절〉

내 존재 전부가 주님을 향하네 내 존재 전부가 주님을 향하네 (롬 12:1)
생명의 새 숨이 내 몸에 흐르네 내 존재 전부가 주님을 향하네 (겔 37:5)

기도문은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기도가 깊어질수록 기도문의 사용이 점점 덜 필요해진다. '주님향함기도'에 익숙해지면 '믿음의 생명막' 이미지만을 떠올리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필요에 따라 기도문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 시간은 한 번의 기도에 1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선택한다.

3) '서로-영적방향잡기': 개신교 '전신자제사장직'에 기초를 둔 수평적 영적지도

'은혜의 방편' 실천의 신자 간 사귀의 영역 교육내용으로 개발된 것은 '서로-영적방향잡기'이다. 이것은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 '만남'을 통해 서로 '자유케 됨'을 돕고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의지가 서로에게 더 풍성히 흐르는 것을 돕는 실천으로서, 감리교 웨슬리의 '은혜의 방편' 가르침에서는 속회라는 모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천이다. 이 실천은 신자 간의 사귀에 영적지도(spiritual direction) 활동의 성격을 통합한 것이다(Leech, 78).

이 실천은 "하나님께서 한 그리스도인에게 개인적으로 의사전달하시는 것에 그가 주의를 기울여서 그렇게 의사전달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가운데 ... 살아가도록, 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베푸는 도움"이라고 알려져 왔다(Barry & Connolly, 1982, 18). 이것은 교육 영역에서는 '멘토링'이라고 불리는 일대일 교육활동의 형식을 가지므로 몇몇 영성학자들은 영적지도를 '영적 멘토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Anderson & Reese, 1999).

이 영적 지도라는 활동을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자유케 됨'을 경험하는 수련의 형태로 변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영적지도에 존재하는 두 가지 부정적 요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한 요소는 영적 지도를 해 주는 사람에게 '영적 지도자'(spiritual director)라는 권위적인 말을 사용해 왔다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지도는 주로 사제 등이 제자를 양성하는 맥락에서 행해진 활동이었다는 사실이다. 먼저, ‘영적 지도자’(spiritual director)라는 용어가 갖는 부작용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spiritual direction이라고 일컬어져 온 영적지도라는 말이 갖는 이중적 의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용어를 교사를 주체로 삼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방향을 잡아주기’이 되고, 학습자를 주체로 삼아 생각하면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스스로) 영적 방향잡기’가 된다. 이 후자의 ‘영적 방향잡기’라는 의미가 옳다는 사실은 현대의 대표적 영적지도 지침서들에 잘 나타나 있다. 리치(Leech)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을 칭하는 명칭으로 ‘영혼의 친구’(soul friend)라는 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다(Leech, 2006). 만일 영적지도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타인의 영적 방향성을 좌지우지 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것은 영적 지도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영적 지도의 대전제를 흐드는 모순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영적지도의 명칭 자체를 한국어로는 선명히 ‘영적방향잡기’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영적 지도는 주로 사제나 선배수도자 등이 제자나 후배 수도자를 육성하는 맥락에서 행해진 활동이었다는 사실은 영적지도가 권위를 가진 윗사람에 의해서 아랫사람에게 행해진 일종의 일방적 지도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렇기에 이 모형에서는 기존의 영적지도의 성격을 상호적으로 변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변형에 도움이 되는 것은 개신교의 ‘전신자제사장직’ 가르침이다(이형기, 72). ‘전신자제사장직’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서로를 위한 ‘영적 방향잡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함의를 가진다. 이 함의에 따라, 위에서 논한 ‘영적방향잡기’라는 새 용어에 ‘서로’라는 한 가지 용어를 더 첨가해 이 교육내용의 이름을 ‘서로-영적방향잡기’로 정했다.

이런 방식으로 기존 영적지도 전통 안의 교사의 권위적 역할을 축소하면서 학습자와 성령님과의 관계에 강조점을 두는 방식은 학습자의 ‘자유케

됨'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서로-영적방향잡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그 형태 자체가 서로 권위를 나누어 갖도록 구성된 그룹 영성지도의 형식을 활용할 수 있다(Dougherty, 2010). 이와 더불어, 일대일의 '서로-영적방향잡기'의 형태에서는 교사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신도 상대방을 통해서 성령님의 '영적방향잡기'를 경험하는 시간임을 만남의 처음이나 마무리 부분에서 짧게나마 명시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다. 물론 어떤 형태에서건 보다 효과적인 영적지도를 하려면 전문적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4) '자유마중섬김': 서로 '자유케 됨'을 목적으로 하는 이웃섬김

'은혜의 방편' 실천의 이웃섬김 영역 교육내용으로 개발된 것은 '자유마중섬김'이다. 이 활동의 목적은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서로에게 마중 나가 '자유케 됨'을 이끌어내주는 것인데, 그 목적을 명칭에 담아 '자유마중섬김'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이웃섬김 활동은 기독교 역사 안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힘써왔던 이웃사랑의 실천인 동시에, 웨슬리의 '은혜의 방편'에도 포함되었고 다익스트라가 꼽은 그리스도교의 '실천들' 목록에 수록된 중요한 실천이다(Dykstra, 42-44). 외적으로 보면 이 '자유마중섬김'은 학습자가 타자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행하는 일종의 현장봉사이지만, 이 실천은 기존의 봉사활동과는 다른 목적을 가진다. 이 '자유마중섬김'은 성탄절 등에 현금이나 물품을 모아 불우이웃에게 보내는 식의 일회성 활동 중심의 실천이 아니기에, 장기적으로 '인격적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섬김의 대상을 선택하는 신중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이 '자유마중섬김'은 섬김의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섬김의 일이 이웃과 자신 양자의 '자유케 됨'을 위한 통로가 된다는 특징을 지니므로, 이 실천을 시작할 때 공동기도 내용 가운데 다음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 저희가 이 섬김을 하는 중에 섬김 받는 분들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말과 태도를 갖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

소서. 그리하여 섬김을 받는 분들이 저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케 됨’을 누리게 되고, 또한 저희 자신도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 큰 ‘자유케 됨’을 누리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주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봉사를 마친 후 ‘자유케 됨’의 목적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5) ‘자유성찰기도’: ‘자유케 됨’ 중심의 성찰기도

‘은혜의 방편’ 실천의 성찰 영역 교육내용으로 개발된 것은 ‘자유성찰기도’이다. 이것은 웨슬리의 ‘은혜의 방편’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영적일지 쓰기(김진두, 2004, 118-120)를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영성수련의 하나로 실천되어 온 자기성찰의 원리와 결합시킨 것이다. 성찰의 과정은 학습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믿음의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세계(사회)와의 관계를 ‘자유케 됨’의 시각에서 매일 바라보는 것이다. 이 기도는 앞의 다른 실천들과 동일한 독립적 수련이면서 동시에 다른 실천들을 자신이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기능도 한다.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의식성찰’(또는 양심성찰)이라는 명칭으로 성찰기도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사람은 로올라의 이냐시오인데(Ignacio, 2005, 25-33), 그의 ‘의식성찰’을 기초로 해서 그 이후 다양한 성찰기도 지침들이 만들어졌다. 본 모형의 ‘자유성찰기도’가 다른 성찰기도들과 변별되는 점은 이 기도의 목적인 ‘자유케 됨’에 있다. 학습자는 자신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의지’가 자신에게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 때 자신이 ‘자기를 드리는 의지’로 응답했는지,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의지’가 전달되었는지를 성찰한다.

그런데 이 ‘자유케 하는 의지’의 움직임 자체를 성찰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구

체적 상황을 성찰한다. 먼저 마음으로 하루의 삶을 성찰한 다음 그 성찰의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다. 하루 중 일어났던 일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일기와는 달리, '자유성찰기도'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세계(사회)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자유케 됨'의 사건에 초점을 둔다. 학습자는 자신에게 맞는 용어로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성찰기도 질문을 만들고 성찰기도의 기준으로 삼는다. 첫 단계의 도입질문은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까워졌는가, 멀어졌는가?'이다. 이 질문은 '오늘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의지에 자기를 드리는 의지로 응답한 일이 있었는가?'라는 두 번째의 핵심질문으로 학습자의 마음과 생각이 열리게 한다. 이에 따르는 세 번째 질문은 '오늘 나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른 이(들)의 자유케 됨에 기여했는가?'이다.

4. 교수-학습과정

본 모형의 교수-학습과정은 학습자의 주체적 '실천'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다익스트라가 추천한 '코칭'과 '멘토링'을 채택한다(Dykstra, 72). 다익스트라가 기독교교육의 교육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제안한 '코칭'은 주로 체육교육에서 신체 훈련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되어왔고 최근 상담코칭학에서는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돕기 위한 일대일 도움의 기술로 부상하고 있지만(유재성, 2009), 지금까지 기독교교육의 장에서는 교수-학습과정으로 많이 언급되지 못해 온 방법이다. 본 모형에서의 '코칭'은 교육내용의 실천을 "학습자가 보다 탁월한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에(Dykstra, 72-73), 코치가 운동선수를 돕는 코칭과 동일한 원리를 갖는다. 교사가 해주는 이 '코칭'을 통해 학습자는 교육내용을 스스로 점점 더 보다 탁월한 수준으로 실천하게 되고, 그 실천의 심화를 통해 학습자의 '자유케 됨'이라는 교육목적이 실현된다.

'멘토링'은 교사가 멘토가 되어 학습자를 일대일로 이끌어 주는 교수-학

습과정이다. 멘토(Mentor)라는 용어는 그리스신화에서 따온 것으로서, 멘토의 과제는 “지성뿐만 아니라 영혼의 교육을” 하는 것이다(Anderson & Reese, 43). 이 멘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멘토링인데, 세 번째 교육내용인 ‘서로-영적방향잡기’는 영적 멘토링(spiritual mentoring)이라고도 불린다. 이런 의미에서 ‘서로-영적방향잡기’는 한편으로는 교육내용이기도 하고 동시에 멘토링이라는 교육방법이기도 하다. 앞 절의 교육내용 중에서 ‘만남의 렉시오 디비나,’ ‘주님향함기도,’ 그리고 ‘자유성찰기도’는 학습자가 스스로 더 탁월한 수준으로 실천하는 것을 교사가 돕는 것이 필요하므로 교수-학습과정으로 코칭이 적합하다. ‘서로-영적방향잡기’는 그 내용 자체가 멘토링이므로 교수-학습과정으로서 멘토링이 적합한 것은 자명하다. 한편, ‘자유마중섬김’ 활동에서는 학습자와 교사가 함께 실천에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므로, 교사가 섬김의 현장에서 함께 실천하면서 학습자의 활동에 대한 코칭도 하고 활동 후에 그 활동과 관련된 멘토링을 해 줄 수 있다.

5. 교육의 환경과 평가

교육환경의 방점은 물리적 환경의 조성이 아니라 인격적 만남을 가능케 하는 신앙공동체라는 인적 환경에 찍혀 있다. 교육환경으로서의 이 신앙공동체는 무어(Moore)가 제시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개하는” ‘성례전적 공동체’를 지향한다(Moore, 2004, 3). 이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해 첫 번째로 유의할 점은 영성수련을 적극적으로 함께 행하지 않은 구성원은 학습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적 환경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유의할 점은 학습자가 스스로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정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그룹모임에서는 공동규약의 방식으로 ‘자유케 됨의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학습자의 ‘자유’를 최대한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공간적 장소로서의 환경은 신체적으로 편안한 가구 배치, 자극적이지 않은 조명, 그리고 그 날의 주제

와 어울리는 상징물의 배치 등을 교육내용에 맞게 준비한다.

평가에 있어서는 학습자가 교육내용의 실천에 얼마나 참여하였는지에 대한 양적인 평가, 그리고 실천을 통해 학습자에게 얼마나 '자유케 됨'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가능하다(Dykstra, 71-74). 교육내용 각각에 대한 평가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남의 렉시오 디비나'에서는 묵상의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둘째, '주님향함기도'에서는 기도의 결과로서 '자유케 됨'이 자신의 일상 생활에서 얼마나 변화를 일으켰는지 학습자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서로-영적방향잡기'에서는 삶의 중요한 일에 대한 분별과 선택이 '자유케 됨'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학습자 자신이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넷째, '자유마중섬김'의 질적인 평가로서는 활동 후 그룹모임에서 자신이 체험한 '자유케 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평가의 과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자유성찰기도'는 그 자체가 다른 실천들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지니지만, 자신이 해온 '자유성찰기도'의 실천 자체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의 평가는 교사가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교사는 '서로-영적방향잡기' 등에서 간접적으로 평가를 도와주도록 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자율적 평가방식이 학습자의 '자유케 됨'을 증진한다는 교육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V. 나가는 말

한국교회 현장에서 영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교육이 어떤 분명한 교육목적의 제시 없이 치우치고 파편화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행된 이 연구는, 개신교의 핵심정신으로 '자유케 됨의 영성'을 찾아내고 그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영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찾아내어 '자유케 됨의 실천'이라는 하나의 창의적인 기독교 영성교육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루터, 칼빈, 그리고 웨슬리의 '믿음의 삶'에 대한 가르침 안에서 '자유케 됨'의 정신을 찾아내어 '자유케 됨의 영성'이라고 칭하며 영성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그 '자유케 됨'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으로서 로마가톨릭교회의 '은혜의 방편'과는 다른 개신교 특유의 '은혜의 방편' 전통을 발견해 내어 그것을 교육내용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자유케 됨'이 일어나는 기전을 '자유케 하는 의지', '자기를 드리는 의지', '믿음의 생명막'이라는 세 개의 새로운 개념으로 설명하고, 이 세 개념을 중심축으로 하고 '은혜의 방편'의 실천을 교육내용으로 삼아 '자유케 됨의 실천'이라는 영성교육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의 교육목적은 학습자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가지면서 점점 더 '자유케 됨'을 누리는 가운데 이웃을 자유케 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교사와 학습자의 관계는 웨슬리의 교육이론에 나타난 인격적 '만남'의 관계이며 김현숙이 제시한 '공유적 권위'의 관계이다. 교육내용으로는 '자유케 됨'을 구현하는 실천으로서 그리스도교 역사 안의 다섯 가지 주요 영성수련들을 채택하여 그것을 개신교의 '자유케 됨'의 원리로 변형하였다. 각각의 명칭은 '만남의 렉시오 디비나,' '주님향함기도,' '서로-영적방향잡기,' '자유마중섬김,' 그리고 '자유성찰기도'이다. 교수-학습과정은 학습자의 주체적 실천을 돕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다익스트라가 제시한 코칭과 멘토링이다. 교육환경은 서로가 은혜의 매개체가 되어주는 무어의 '성례전적 공동체'이며, 평가는 학습자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본 교육모형이 다른 유형의 영성교육 모형들과 변별되는 점은 그리스도교 역사 안의 주요 영성수련들을 교육내용으로 전폭적으로 도입하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신교의 '자유케 됨'의 정신으로 변형한 것이다. 본 모형은 이렇게 기존의 영성수련 내용들을 명시적으로 개신교의 영성으로 변형하여 교육하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온 그리스도교 영성수련의 맥을 개신교 교회에서 창조적으로 계승해 나

갈 수 있게 해 주는 길을 열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제한된 다섯 가지 영성수련만을 교육내용에 포함시켰는데, 후속연구를 통해 더 많은 그리스도교 영성수련이 개신교 영성교육의 내용으로 개발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본 모형의 다섯 가지 교육내용도 각각을 심화하는 후속연구를 통해 더 정교한 교육내용으로 다듬어지게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영성교육 모형이 그동안 많은 영성교육의 노력을 시도해 온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든든한 개신교 영성교육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 하는 역할을 하여서, 영적 성장에 큰 갈망을 갖고있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회중들이 서로를 날마다 더 '자유케 하는' 삶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강희천 (1999). **기독교교육의 비판적 성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Kang, H. C. (1999). *A critical reflection on Christian education*. Seoul: Korean Christian Publishing House.]
- 김광목 (2013). 장 칼뱅의 경건과 현대신학적 과제. **한국조직신학논총**, 36, 43-79.
- [Kim, G. M. (2013). "The piety of john calvin and the task of modern theology.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in Korea*, 36, 43-79.]
- 김은주 (2020). 생태학적 기독교 영성을 통한 기독교교육의 방향과 실천적 제언. **기독교교육논총**, 63, 347-376.
- [Kim, E. J. (2020). A practical proposal for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through the insights of ecological Christian spirituali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3, 347-376.]
- 김정준 (2011). 기독교영성교육 연구방법론에 관한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27, 155-192.
- [Kim, J. J. (2011). A literature review on research methodologies for Christian education in spirituali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7, 155-192.]
- 김진두 (2004). **웨슬리의 실천신학**. 서울: 도서출판kmc.
- [Kim, J. D. (2004). *Practical theology of wesley*. Seoul: kmc Publishing House.]
- 김현숙 (2007). 공유적 권위와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정보**, 17, 193-214.
- [Kim, H. S. (2007). Shared authority and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Information*, 17, 193-214.]
- 안건훈 (2006). **자유지와 결정론**. 파주: 집문당.
- [Ahn, K. H. (2006). *Free will and determinism*. Paju: Jibmoondang.]
- 양금희 (2013). 어린이 영성, 감성 그리고 감각의 관계를 통해서 본 어린이 영성형성 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34, 31-63.
- [Yang, K. H. (2013). The direction of education for spiritual formation of childr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lation of children's spirituality, emotion, and sens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4, 31-63.]

- 유기성 (2016). **영성일기**. 서울: 규장.
[Yoo, K. S. (2016). *Spiritual journaling*. Seoul: Kyoujang.]
- 유재성 (2009). 상담과 코칭의 분리-통합 접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8**, 95-120.
[Yoo, J. S. (2020). A separation-integration approach to counseling and coaching.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in Korea*, *18*, 95-120.]
- 유해룡 (1999). **하나님 체험과 영성수련**.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Yoo, H. L. (1999). *The experience of God and spiritual practices*. Seoul: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Press.]
- 이승구 (2011). 관상기도의 문제점. **신학정론**, **29(1)**, 121-155.
[Lee, S. K. (2011). The problems of contemplative prayer. *Orthodox Discussion of Theology*, *29(1)*, 121-155.]
- 이형기 (1994). **세계교회사2**.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Lee, H. K. (1994). *World history of the church II*. Seoul: Korean Presbyterian Publishing House.]
- 이후정 (2000). 은혜의 수단. **기독교사상**, **44(6)**, 184-193.
[Lee, H. J. (2000). Means of grace. *Christian Thoughts*, *44(6)*, 184-193.]
- 정원범 편 (2006). **영성 목회 21세기**. 서울: 한들출판사.
[Jung, W. B. ed. (2003). *Spirituality, Pastoring, and the 21st century*. Seoul: Handle Publishing House.]
- 허성준 (2003).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왜관: 분도출판사.
[Huh, S. J. (2003). *Lectio divina according to the monastic tradition*. Waegwan: Bundo Publishing House.]
- Anderson, K. R. & Reese, R. D. (2001). **영적멘토링**. 김종호 역. 서울: IVP. (원저 1999 출판)
[Anderson, K. R. & Reese, R. D. (2001). *Spiritual mentoring: A guide for seeking and giving direction*. Translated by Kim, J. H. Seoul: Korea InterVa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99.)]
- Barry, W. A. & Connolly, W. J. (1995). **영적 지도의 실제**. 김창재·김선숙 역. 왜관:

분도출판사, (원저 1982 출판)

[Barry, W. A., & Connolly, W. J. (1995). *The practice of spiritual direction*. Translated by Kim, C. J & Kim, S. S. Waegwan: Bundo Publishing House.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82.)]

Bourgeault, C. (2017). **마음의 길: 향심기도와 깨어나기**. 김지호 역. 고양: 한국기독교 연구소. (원저 2004 출판)

[Bourgeault, C. (2017). *Centering prayer and inner awakening*. Translated by Kim, J. H. Goyang: Korean Christian Research Institute.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04.)]

Brunner, Emil. (1943). *Truth as encounter*. Philadelphia, PA: Westminster Press.

Buber, M. (1995). **나와 너**. 표재명 역. 서울: 문예출판사. (원저 1923 출판)

[Buber, M. (1995). *I and thou*. Translated by Pyo, J. M. Seoul: Moonye Publishing House.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23.)]

Calhoun, D. B. (2018). **칼뱅을 읽다**. 홍병룡 역. 서울: 조이북스. (원저 2016 출판)

[Calhoun, D. B. (2018). *Reading Calvin*. Translated by Hong, B. L. Seoul: Joy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16.)]

Calvin, J. (1990). **기독교강요-제1,2,3,4권**. 김종흡 외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원저 1559 출판)

[Calvin, J. (1990).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I, II, III, IV. Translated by Kim, J. H et al. Seoul: Word of Life Publishing House. (Original work published in 1559.)]

Cully, I. V. (1986).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 이기문·류영모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원저 1984 출판)

[Cully, I. V. (1986). *Education for Spiritual growth*. Translated by Lee, K. M. & Lyu, Y. M. Seoul: the Korean Christian Presbyterian Publishing House.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84.)]

Dougherty, R. M. (2010). **그룹영성지도: 분별을 위한 공동체**. 이만홍·최상미 역. 서울: 로템. (원저 1995 출판)

- [Dougherty, R. M. (2010). *Group Spiritual Direction: Community for Discernment*. Translated by Lee, M. H. & Choi, S. M. Seoul: Rhodem.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95.)].
- Dykstra, C. (1999). *Growing in the life of faith: Education and Christian practices*. Louisville, KY: Geneva Press.
- Freire, P. (1986). **페다고지: 억눌린자를 위한 교육**. 성찬성 역. 서울: 한마당. (원저 1972 출판)
- [Freire, P. (1986). *Pedagogy of the oppressed*. Translated by Seung, C. S. Seoul: Hanmadang.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72.)]
- Groome, T. H. (1983). **기독교적 종교교육**. 이기문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 (원저 1980 출판)
- [Groome, T. H. (1983).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Translated by Lee, K. M. Seoul: General Assembly of the Korean Christian Presbyterian Churc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80.)]
- Holmes, U. T. (1998). **목회와 영성**. 김외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1982 출판)
- [Holmes, U. T. (1998). *Spirituality for ministry*. Translated by Kim, W. S. Seoul: Korean Christian Book Club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82.)]
- Ignacio de Loyola (2005). **로올라의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정제천 요한 역. 서울: 빅벨-이나시오영성연구소. (원저 1548 출판)
- [Ignacio de Loyola (2005). *Spiritual exercises of st. ignatius of loyola*. Translated by Jung J. C. John. Seoul: Bigbell Ignatius Spirituality Research Institute. (Original work published in 1548.)]
- Kant, I. (2009). **실천이성비판**. 백종현 역. 서울: 아카넷. (원저 1788 출판)
- [Kant, I. (2009).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Translated by Pak J. H. Seoul: Acanet. (Original work published in 1788.)]
- Keating, T. (1999). **관상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 사랑에로의 초대**. 엄무광 역. 서울: 가톨릭출판사. (원저 1992 출판)

- [Keating, T. (1999). *Invitation to love: The way of Christian contemplation*. Translated by Eum M. K. Seoul: Catholic Publishing House.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92.)]
- Leech, K. (2006). **영혼의 친구**. 신선명·신현복 역. 서울: 아침영성지도연구원. (원저 1977 출판)
- [Leech, K. (2006). *Soul friend: The practice of Christian Spirituality*. Translated by Shin, S. M. & Shin, H. B. Seoul: Morning Spiritual Direction Research Institute.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77.)]
- Luther, M. (1999). **루터 저작선**. Dillenberger, J. 편,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원저 1961 출판)
- [Luther, M. (1999).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Ed. John Dillenberger. Translated by Lee, H. K. Seoul: Christian Digest.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61.)]
- McGrath, A. (2006). **기독교영성베이지**. 김덕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1999 출판)
- [McGrath, A. (2006). *Christian spirituality: an introduction*. Translated by Kim, D. C. Seoul: Korean Christian Book Club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99.)]
- Moore, M. E. M. (2004). *Teaching as a sacramental act*. Cleveland, OH: The Pilgrim Press.
- Sherrill, L. J. (1981). **만남의 기독교교육**. 김재은·장기옥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원저 1963 출판)
- [Sherrill, L. J. (1981). *The gift of power*. Translated by Kim, J. E. & Jang, K. O. Seoul: Korean Christian Publishing House.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63.)]
- Teresa of Avila. (2008). **영혼의 성**. 최민순 역. 서울: 바오로딸. (원저 1972 출판)
- [Teresa of Avila. (2008). *The interior castle*. Translated by Choi, M. S. Seoul: Daughter of Paul.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72.)]

- Wendel, F. (1999).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김재성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Wendel, F. (1999). *Calvin and the root and development of his theological thoughts*. Translated by Kim, J. S. Goyang: Christian Digest.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50.)]
- Wesley, J. (2006).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후정 역.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원저 1960 출판)
- [Wesley, J. (2006).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Translated by Lee, H. J. Seoul: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60.)]

Abstract

**The Practice of ‘Liberated-ness’:
An Education Model for Protestant Spiritual Practice**

In-Hae Hwang
Lecturer, Yonsei University

Although the interest in Christian education of spirituality has increased recently, the practice of the education of spirituality in the Korean Church has been fragmented in the contents and methods without any clear educational purpose of the Protestant tradition. This requires a creative study to seek out the contents and method best suited to realizing the educational purpose of the Protestant tradition, through a rigorous academic methodology. This study proposes just such a creative model for the education of spirituality with an educational purpose based on the core ethos of the Protestant spirituality, integrating the long tradition of spiritual practices of Christianity. First, I survey the teachings on ‘the life of faith’ of the main leaders of the Protestant church, including Martin Luther, John Calvin, and John Wesley. Through this process, I reveal ‘liberated-ness’ to be the common purpose of the Protestant leaders, and the core of the practices for that purpose are ‘the means of grace,’ which has a different meaning from that of the Roman Catholic tradition. I construct the meaning of ‘liberated-ness’ in a dynamic manner, which begins with the ‘liberating will’ of God, and is followed by the ‘self-giving will’ of the believer as the response to the ‘grace’ of the ‘liberating will.’ The contact point of these two ‘wills’ is what I call ‘the living membrane of faith.’ As a creative synthesis of the above discussions, I propose a model of ‘the practice of liberated-ness’ for an

education in spiritual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education is for the learner to become a person who continuously experiences ever-increasing 'liberated-ness' through continuous personal 'encounters' with God, and to become ever more faithful in carrying out practices for the 'liberated-ness' of her or his neighbo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er and the learner is that of personal 'encounter' as put forth by Sherrill, and also incorporates elements of 'co-authorship' as conceptualized by Kim. I transform and rename major practices of spiritual discipline according to a principle of 'liberated-ness' based on the Protestant tradition, and these comprise the main content of my spirituality education model. They include: 'lectio divina of encounter,' 'prayer facing the Lord,' 'service in liberation,' 'reflection of liberated-ness,' and 'mutual spiritual direction.' The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draws on Dykstra's methods of coaching and mentoring. The key environment is that of a 'sacramental community' as defined by Moore. Evaluation can be performed only by the learner her/himself. The significance of this model is that it creatively inherits and succeeds the tradition of Christian spiritual discipline from the early church onwards by transforming it through a Protestant spirituality of 'liberated-ness.'

《 **Keywords** 》

Protestant Church, Liberated-ness, Spirituality, Christian Education for Spirituality, the Means of Grace, Practice, Liberating Will, Living Membrane of Faith

- 투고접수일 : 2021년 11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12월 30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12월 30일